

## ■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제60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회의 심의총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선정회의 : 서류심사
  - 일시/ 장소 : 2023. 2. 16(목) 08:00/ 온라인 줌회의
- 2차 선정회의 : 전시계획안 발표(PT) 및 인터뷰 심사
  - 일시/ 장소 : 2023. 3. 7(화) 08:00/ 온라인 줌회의
- 선정위원 : 우현수, 임근준, 주은지(위원장), 정현, 요한 볼츠(Jochen Volz), 음마(Yung Ma)

### 심의총평(영문)

#### **Initial review and preliminary selection(February 16th, 2023)**

An open call was posted on December 2nd, 2022 for the Korean Pavilion at the 6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Venice Biennale; ten candidates applied with specific projects defined within the application by the deadline on December 30th, 2022.

Prior to the meeting, jury members reviewed documents, portfolios, and applications and were asked to select their top three candidates and submit brief comments on that selection. Based on that exercise, the top five applications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length at the online meeting of February 16th, held on Zoom. Three applications including Jacob Fabricius and Lee Seolhui (Koo Jeong A) garnered the most votes. Each of these proposals features single-artist presentations.

Two of those proposals that also had support were large group exhibitions that some committee members did not feel adequately considered the context or the platform of the Korean Pavilion as one exhibition venue among many other national pavilions, the main exhibition, and collateral exhibitions and events. The jury agreed that these projects were neither realistic to execute in Venice nor compelling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and they were excluded. The committee agreed that the three proposals were the strongest and were selected for full curatorial presentations at the second meeting on March 7th, 2023.

### **Finalist presentations(March 7th, 2023)**

For the second meeting, three applicants were invited to present for 35 minutes each, followed by Q/A.

The first presentation featured major new works in video and sound. The second presentation featured new work focusing on themes of death as well as an allegorical exploration of the DMZ.

The presentation by Jacob Fabricius and Lee Seolhui, ODORAMA CITIES, presents works by Koo Jeong A both inside the Korean Pavilion and in the Giardini or City of Venice. The main proposal is linked to previous works by the artist on smell and color and transforms the pavilion into a sensorial space of smell and color—a scent journey. This aspect of the proposal was very well received, though additional plans to develop and market a perfume as well as building a skatepark in the city of Venice met less enthusiasm and some concerns. The other two presentations were also great, but they were not well received due to practical concerns.

### **Deliberation results**

While each of the final presentations was well prepared and delivered, the committee came to a unanimous decision to support the appointment of Jacob Fabricius and Lee Seolhui as co-curators for the Korean Pavilion at the 6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Venice Biennale. In this proposal, the Korean Pavilion is transformed into an immersive scent journey that will “include smells that represent a variety of cities in North and South Korea.” Smells representing the cities will be professionally produced and embedded into the paint of the Pavilion.

In the jury’s deliberations, much was said of the caliber of all the artists proposed, but the proposed use of the space of the Korean Pavilion by Koo Jeong A was discussed as the most exciting and provocative. Overall, the jury felt both curators and the artist had best considered the Korean Pavilion as site as well as the exhibition as part of the context of the Venice Biennale’s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The jury appreciates the timely, poetic nature of the project when the curators’ write, “reflecting on today’s society, we know how precious the experience of breathing and smelling after COVID-19 is, and ODORAMA CITIES

could awaken the sense we have lost or missed.

The jury enthusiastically supports the Fabricius/Lee proposal to “create an immersive environment of intimacy, and through this scent journey make a national portrait of Korea… the perception of scents and odors establishes an effective connection to memories and emotions in the recipient, so we expect that the scents will unite Korea in a previously unforeseen way.” The idea of scent memory uniting the peninsula is a powerful insertion as we n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nd a poetic gesture of peace.

The jury members would like to continue discussions with the curators as they develop their project, suggesting a follow-up meeting in the coming months. Additionally, the jury would like to express their collective concern for the total budget available for the Korean Pavilion exhibition, production, staffing and publication. The current budget is around 600 million KRW (480,000EUR). The jury humbly suggests that the base budget of the Korean Pavilion be increased to secure the best exhibitions, works, and promotion for future Venice Biennales.

## □ 심의총평(국문)

### 1차 선정회의 및 선정(2023.2.16)

2022년 12월 2일,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제60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공개 모집이 공고되었으며 10명의 지원자(팀)이 2022년 12월 30일 지원 기한 내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심의 전 선정위원들은 서류와 포트폴리오, 지원서를 검토하였다. 각 선정위원에게는 3인의 후보군을 추천하고 선정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월 16일 진행된 줌 화상회의에서 상위 5개 지원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야콥 파브리시우스와 이설희 (구정아) 팀을 비롯한 세 지원자(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세 지원자 모두 작가 1인의 작품을 제안했다.

두 지원자는 대규모 단체전을 제안했는데 일부 선정위원들은 수많은 국가관과 주 전시, 부대 전시와 행사 중 하나의 전시공간인 한국관이라는 플랫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보았다. 선정위원회는 두 프로젝트가 베니스에서 실행되기 위한 현실성과 국제 관람객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여 두 제안을 제외했다. 선정위원회는 세 개의 제안이 가장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2023년 3월 7일 2차 심의에서 구체화된 전시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듣기로 하였다.

### 2차 심의대상자 전시계획안 발표(2023.3.7)

2차 심의에서 세 지원자(팀)가 각각 35분씩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발표는 영상과 음향 분야의 주요 신작들이 선보여졌으며, 두 번째는 죽음을 주제로 한 새로운 작품과 DMZ에 대한 우화적 탐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야콥 파브리시우스와 이설희 팀의 《오도라마 시티》는 구정아의 작품을 한국관 내부와 자르디니 광장 또는 베니스 시내에 전시할 것을 제안했다. 동 팀의 주요 제안은 향과 색에 관한 작가의 전작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관을 냄새와 색의 감각적 공간, 즉 향의 여정으로 탈바꿈 시킬 것을 제안한다. 향수를 제작 및 판매하고 베니스 시내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는 추가적 계획에는 일부 선정위원들이 우려를 표했고 그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기술한 요소들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른 두 발표도 훌륭했으나 현실적인 우려로 인해 호평을 받지 못했다.

## 심의 결과

세 지원자의 발표 모두 준비와 전달이 훌륭했으나 선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야콥 파브리시우스와 이설희를 베니스비엔날레 제60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했다. 동 제안에서 한국관은 “남북한의 다양한 도시들을 대표하는 냄새를 아우르는” 몰입형 향기 여행으로 변모한다. 도시를 대표하는 냄새는 전문가를 통해 제작해 한국관 도료에 덧입혀질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제안된 작가들의 역량을 다수가 언급했으나 구정아 작가의 한국관 공간 사용이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인 제안으로 꼽혔다. 전반적으로 선정위원들은 큐레이터와 작가 모두 공간으로서의 한국관과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의 일부로서의 전시를 가장 잘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오늘날의 사회를 생각하면 코로나19 이후 숨을 내쉬고 냄새를 맡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오도라마 시티》는 우리가 상실했거나 놓쳐버린 이 감각을 일깨워줄 것이다” 라는 큐레이터들의 글에서 드러나는, 제안의 시의적절하고 시적인 성격을 선정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선정위원들은 “몰입과 친밀함이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향기 여행을 통해 한국의 국가적 초상을 그려낸다… 향과 냄새를 인식하면 그 향과 냄새를 맡는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사실상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 향들이 뜻밖의 방식으로 한국을 하나도 묶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는 파브리시우스/이설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향 기억이라는 아이디어는 정전 7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강력한 개입이자 평화의 시적 몸짓이 된다.

선정위원들은 두 큐레이터가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며 수개월 내에 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 한국관 전시, 제작, 인력 및 출판에 책정되는 총 예산에 대한 선정위원회 전체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관 예산은 6억원(48만 유로)이다. 선정위원회는 최고의 전시와 작품, 향후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한국관 기본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

